

“계약·바이오, 4차 산업혁명 주도”... 글로벌 성장 원년

계약업계 올해 경영전략

경영슬로건 정하고 사명 변경도 키워드는 ‘글로벌·혁신·도약’

새해를 맞아 계약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쏟아냈다.

3일 계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계약사들은 사무식을 통해 올해를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또한 계약·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올해의 경영슬로건을 ‘새로운 도전, 새 가치 창조’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 사유, 실행을 실천 지표로 삼아 인재 양성, 창의적 사고, 즉시 행동하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였던 어려운 난관들을 뜨거운 도전정신으로 극복하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쉬 없이 달려와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개발’, ‘창의’, ‘행동’이며, 우리 회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자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남다른 창의력과 앞선 행동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



허은철 녹십자 사장



임성기 한미약품 사장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이경하 JW중외그룹 회장

녹십자는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사명을 GC로 변경했다. 회사 측은 녹십자(Green Cross)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것으로 위대한 헌신과 도전을 통해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허일섭 GC 회장은 “새로운 CI에는 근본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도약하는 내일의 우리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 “역동적인 상호리더십 등을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위대한 스토리를 써 내려 가자”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슬로건은 ‘계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이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2018년 새해 경영슬로건은 ‘계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이라며 “한미의 창조와 혁신, 도전은 대한민국의 계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혁신은 한미의 핵심 DNA”라고 말했다.

다. 이어 “혁신 없이는 창조와 도전은 물론 생존과 미래도 없다”며 “신약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임상이행연구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경영이 한미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은 제약과 바이오 산업을 접목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며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직원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2018년 경영방침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객신뢰 향상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의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대웅제약은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2018년 매출 1조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임직원 모두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고객과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제약그룹은 지난 60년의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올해를 ‘100년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았다.

김은선 회장은 “2018년은 ‘100년 보령’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나를 넘어 ‘우리’가 되어 각 사가 정한 목표를 이루고,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과 함께 조직과 인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경영방침을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 JW ; 지속적 성과’로 확정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수평적 소통 ▲일사불란한 실행을 제시했다. 새해 경영방침은 ‘스마트 JW’의 2단계로, 지난해 재정립한 회사만의 일하는 방식인 ‘JW Way’를 기반으로 ‘소통’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업적과 성과, 사회적 기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경하 회장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의 본질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그룹은 올해 경영지표를 ‘고객가치 중심의 혁신과 도약’으로 수립했다. 경영방침으로 ▲품질 최우선 ▲계획대로 실행 ▲경쟁효율성 증대 등을 설정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시민기획 공모

서울 시민이 ‘한강몽땅 여름축제’ 기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18 한강몽땅 시민 기획 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한강몽땅을 시민 주도형 축제로 만들기 위한 공모를 3일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 공모 과정은 ‘한강에서의 여름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시원한강(수상·도전) ▲감동한강(문화·예술) ▲함께한강(자연·휴식) ▲특별한강(공원 특화)까지 4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공연·전시·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기획하면 된다. 주제를 복합적으로 접목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기획안이 사업으로 선정되면 각 사업규모에 따라 500만원~3000만원을 차등 지원 받아 축제에서 실현할 수 있다.

지원된 사업비로는 행사 추진에 필요



2017년 한강몽땅 시민 기획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단디우화’.

한 공연비와 운영비, 홍보, 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기용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천만 시민들의 피서지 한강이 올해도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시민들의 축제로 기획하고자 이번 공모를 준비했다”며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시민들의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지난해 가장 깨끗했던 자치구는 ‘송파구’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수질·대기 배출업소 점검 등 평가

지난해 환경관리를 가장 잘 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송파구가 최우수, 성동구와 서초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관리 ▲환경 위입업무 관리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수질·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 적발률,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공무원 인력운영 등이 우수한 송파구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체 총 환경오염물질(수질·대기) 배출업소 점검대상 2734개소 중 2942개소를 점검해 점검률 107.6%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위반사업장은 289개소로 점검업소 대비 9.8%의 실적을 보였다.

또한 매년 자치구를 평가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률, 위반 적발률 등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2개 항목 모두 ‘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인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올해도 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과 소통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투명한 환경행정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우리 구청 소식

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우리동네 소식’

마포구,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안녕하세요 핑크쟁이예요 뽕장 언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손주가 아파서 고생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 감기가 심해서 마음 아팠어요” 마포구 지역 주민이 동네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마포구는 성산2동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톡톡성산2, 거침없는 수다’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성산2동을 대표하는 전·현직 통장들이 만들고 있다. 평소

알지 못했던 동네소식을 입담 좋은 주민들을 통해 듣기 때문에 신선함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이들은 라디오 제작을 위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5주간 전문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송덕호 방송본부장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톡톡성산2, 거침없는 수다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마포FM 100.7MHz에서 들을 수 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고 1·2부로 나뉜다. 1부는 성산2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동네소식을 전하는 ‘성산2동의 이모저모’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초대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지금 만나고 싶어요’ 코너가 열린다.

/이범중 기자



중로한복축제 ‘문화관광육성축제’ 선정

서울 중로한복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됐다고 3일 중로구가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 축제를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육성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은 광역 지자체별 심위원회를 열고 후보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와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축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서울 중로한복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8년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됐다고 3일 중로구가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 축제를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문화관광육성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은 광역 지자체별 심위원회를 열고 후보를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와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축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범중 기자



노원구립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서울 노원구립여성합창단이 2018년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와 인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각 0명이다. 응모 자격은 노원구 거주 25세 이상 50세 이하 여성이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24일, 구청 누리집 ‘인터넷 모집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진(3.5×4.5) 2매, 응시곡 악보 사본 3부, 자필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준비해 심사당일 제출하면 된다.

/이범중 기자